

전북,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로 성장

IBK자산운용,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사무소 개소... 자산운용사 집적 가속화 · 특화 도시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IBK자산운용이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희숙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지훈 전주시장, 임찬희 IBK자산운용 대표이사, 오정순 IBK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2004년 설립된 IBK자산운용은 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자본금 200억 원에 운용자산 44조 6,000억 원 규모를 갖추고 있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 모여들면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신한자산운용, 알리안츠인베스터스, 블랙록, 페블스톤자산운용, 스타우드캐피탈 등 국내외 운용사가 문을 열었고, 골드만삭스와 퍼시픽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등도 연내 개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KB금융그룹이



전북자치도는 11일 IBK자산운용이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유희숙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지훈 전주시장, 임찬희 IBK자산운용 대표이사, 오정순 IBK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KB금융타운을, 우리금융그룹이 우리WON금융타운을 나란히 개소하며 지역 금융 생태계의 뼈대를 갖췄다. 이번 IBK자산운용의 합류는 개별 운용사들의 집적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는 이 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가 들어서면 지금은 흩어져 입주한 운용사들이 한 거점에 모이게 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IBK자산운용이 전북에 자리 잡은 것을 환영한다"며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지로 한 걸음씩 성장해 온 흐름을 이어 금융특화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패럴림픽 경쟁력 활용한 유치전략 고도화

패럴림픽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차별화 전략 논의
접근성 · 포용성 기반 미래형 올림픽 · 패럴림픽 구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전주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 라운드테이블(패럴림픽 분야)'을 열고 대한민국의 패럴림픽 경쟁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유치 전략과 미래형 올림픽 · 패럴림픽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 · 평창 패럴림픽 개최 경험과 장

애인체육 운영 역량을 전수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 · 패럴림픽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최계획서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1988 서울패럴림픽과 2018 평창패럴림픽 개최 경험, 체계적인 장애인체육 시스템, 국제대회 운영 역량을 전수하계올림픽

픽 · 패럴림픽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경기장과 교통, 숙박, 정보 제공 등 대회 전반에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형 대회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패럴림픽의 가치 확산과 사회적 유산 창출 방안을 개최계획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함께 하나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대한민국이 축적한

개최 경험과 장애인체육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면 경쟁도시와 차별화된 강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서배원 도 유치총괄과장은 "대한민국은 서울과 평창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적 운영 역량과 장애인체육 기반을 갖춘 국가"라며 "이번 회의서 제시된 의견을 개최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전북민의 경쟁력 있는 유치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문화, 친환경, 디지털(AI), 패럴림픽 등 분야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이어가며 IOC 핵심 가치를 반영한 전주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개최계획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위탁아동 · 보호대상자 위한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 모금

위탁아동 안정적 성장 지원... 신규 위탁가정 70세대에 각 1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정위탁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장애 · 고령 보호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으로 총 1억원을 모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기부 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7천만원과 '장애 · 고령 보호대상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3천만원 등 2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하는 지정기부 사업이다. 신규 위탁가정 70세대에 아동용품 구입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해 초기 양육 부담을 덜고, 위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 · 고령 보호대상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신체장애 또는 고령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처방과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

업이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소요 예산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고향사랑기부와 마찬가지로 주소를 제외 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지정기부 사업의 모금 목

표 달성을 위해 온 · 오프라인 홍보와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추진해 사업 취지를 알리고 기부 참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철 전북자치도 대외협력과장은 "이번 지정기부가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위탁아동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자가 직접 선택한 마음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구급차 이송처치로 현실화

응급의료 취약지역 9개 시군, 건당 최대 20만원 지원
이송처치로 인상...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품질 향상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로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로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km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km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km당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 5천원에서 9만 5천500원으로, 10km 초과 시 추가요금은 1km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아간 활용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함중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까지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 필수 구비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

환자 인계 과정에서 서명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구급차와 의료기관 간 환자 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급차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GPS 기반 운행관리 체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도는 이송처치로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이송비 지원을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도는 이송처치로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정읍 · 남원 ·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 등 9개 시 · 군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 ·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설구급차 등을 이용하면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폭염 취약계층에 냉방물품 긴급 지원

재해구호기금 4억2839만원 투입... 고위험군 맞춤형 냉방물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어르신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냉방물품과 경로당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총 4억2,839만원을 투입해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 9,633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맞춤형 냉방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경로당 1,394개소에는 개소당 냉방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층과 장애인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군에게는 넥쿨러와 쿨링타월, 쿨패치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냉방물품을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 속 건강과 안전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 · 군에 관련 사업비 지원을 완료했으며, 시 · 군을 통해 대상자에게 냉방물품이 조속히 전달될 계획이다. 연장 운영 경로당에 대한 추가 냉방비도 이번 주 안에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미정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 · 군과 긴밀히 협력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